

## 心理學教育의 當面課題

崔 祥 鎭  
(中央大 副教授)

### I. 現代心理學의 歷史와 美國心理學의 勢力

心理學의 歷史는 길고도 짧다. 人間이 탐구하는 마음(心)을 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해 온 이래 인간은 인간자신의 探究와 觀察을 끊임없이 해왔으며, 그 결과는 哲學, 宗教的 書籍 또는 俗談, 名言 등에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다. 이 점에서 心理學의 歷史는 「석가모니」「공자」「맹자」「순자」에까지, 또는 「예수」의 성경에서부터 「소크라테스」「아리스토텔레스」「플라톤」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心理學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소속되었던 哲學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學問領域으로 신설된 歷史는 불과 100여년에 불과하다.

心理學이 哲學에서 독립된 배경에는 인간의 心理를 보다 客觀적이고 科學적인 方法과 道具를 사용하여 研究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現代心理學의 始祖는 1879년에 독일 「라이프찌히大學」에 心理學實驗室을 창설한 빌헬름 분트(W. Wundt)로 잡고 있다. 1881년에 분트는 최초의 心理學研究誌를 「Philosophische Studien」이라는 題目으로 출간했고, 1888년에는 맥킨 캐텔(McKeen Cattell)이 펜실베니아大學에서 최초로 心理學教授라는 職名을 획득했고, 1887년에는 스텐리 홀(G. Stanley Hall)에 의해 美國에서 최초의 心理學雜誌(American Jour-

nal of Psychology)가 출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事件들은 心理學을 哲學과 분리된 公式的 學問으로 學界에서 인정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獨逸에서 시작한 現代心理學은 美國에서 急成長하여 1940년에는 心理學의 中心이 美國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현재 美國心理學會의 會員數는 무려 5만명을 넘고 있다. 車載浩教授의 報告<sup>1)</sup>에 따르면 78년과 81년 사이에 美國에서 배출된 心理學 博士數는 1만3천명을 상회한다. 같은 기간에 배출한 他分野의 博士數를 비교해 보면, 歷史學이 3천명, 人類學 1천명, 經濟學 政治學이 2천5백명, 社會學이 2천명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美國에서 心理學이 얼마나 보편적이며 인기가 높은 學問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教授數에 있어서도 心理學科는 他社會科學의 學科보다 크다. 車載浩教授의 論文<sup>2)</sup>을 인용해서 몇몇 美國大學에서의 教授數를 學科間 比較해 보면 다음 페이지의 <表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美國大學의 心理學科의 教授數는 중간규모의 學科가 평균 50명 정도이고 큰 學科를 둔 大學은 80명 내외의 教授陣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教授陣의 규모는 他社會科學과 비교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心理學科가 대규모 학과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美國에서 心理學이 이처럼 量的으로 팽창하고, 質적으로 高度의 實用性, 科學性이 높은 研究業績을 量產하기 시작하자, 이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表-1〉 몇 개 美國大學에서 본 社會科學分野學科에서의 教授數의 比較 (1976年度 現況) 및 分野別輩出博士學位數

大學 學 科	Illinois	U.	Minne-	U. Wis-	UCLA	UC,	Stanford	State U.	輩出한博士 學位數** (1957~ 1967)
	State U.	Illinois, Chicago Circle	sota	consin, Madison		Berkeley		New York, Stony Brook	
人 類 學	22*	17	16	16	29	35	26	14	808
經 濟 學	11	26	27	45	23	51	59	22	4,696
地 理 學	10	16	20	18	24	15	21	...	902
法 學	...	...	25	...	41	77	9	...	...
政治學(Political Science)	13	30	29	36	50	52	46	23	2,554
心 理 學	34	49	60	37	85	45	56	52	9,276
社 會 學	22*	39	30	52	33	32	26	29	2,096
계	112	117	270	204	295	307	243	140	20,032

\*社會學과 人類學科를 合한 教授數임.

\*\*American Council of Education編, A Rating of Graduate Program (1970).

에서도 心理學은 대학과 사회에서 學問性과 實用性을 겸비한 인기있는 학문으로 수용되고 있다.

## II. 韓國心理學의 發達過程

科學主義, 實驗主義에 입각한 현대적 의미의 科學的 心理學이 만들어진 곳은 서양이었고, 그 歷史도 100여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서구의 心理學이 韓國에 도입된 것은 지금부터 60여년전인 1920年代로 韓國心理學者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 당시에 心理學이란 말이 한국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梨花女子學堂, 中央幼稚師範科(現在の 中央大前身임), 延禧專門 등에서 心理學 講義가 開設되었다.<sup>3)</sup> 이러한 基督敎學校에서 宣敎師들에 의한 心理學 도입과는 별도로 1924년에 개설된 京城帝國大學의 法文學部에서 心理學講義가 개설되었다. 이 당시의 학풍은 독일의 形態心理學을 도입하였으며, 感覺實驗, 動物實驗에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해방전까지 京城帝大를 졸업한 心理學專攻者數는 7명이며, 이 분들 중 일부와 日本에서 心理學을 전공하고 돌아온 몇분(약 3분 정도)이 해방 후 한국의 대학에서 心理學科 創設에 주역을 담당하였다.

해방후인 1946년에 서울大 文理科大學에 心理學科가 개설된 것을 필두로, 47년에는 中央大에, 50年代에 들어 梨花女大와 成均館大에, 60년에는 高麗大에 心理學科가, 71년에는 서울女大에 敎育心理學科가 창설되었다.<sup>4)</sup> 이들 5개 大學의

心理學科가 최근인 1977年度까지 心理學專攻者 배출의 本山을 이루어 왔고, 76年末 現在 學士 1,676名, 碩士 146名, 博士 8名을 배출하였다.<sup>5)</sup> 해방후 1970年代 중반기까지 韓國心理學界는 心理學敎科課程의 틀을 정립시켰고, 心理學敎育을 대학 전반에 정착시켰으며, 量的으로는 적으나 꾸준히 學士·碩士를 배출해 냈다. 이 당시에 心理學分野의 就業分野는 心理學에 대한 社會的 理解의 不足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이들 중 소수만이 研究所, 精神病院, 大學, 企業體, 國家機關, 軍隊 등에서 心理學을 활용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心理學에 대한 낮은 社會的 認識과는 달리 心理學者 自身の 學問에 대한 愛着心과 프라이드는 매우 강했으며, 大學社會를 비롯한 知識人社會에서는 心理學의 학문적 깊이와, 心理學에 대한 社會的 必要性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점차로 고조되었다. 특히 心理學과 관련성이 높고 西歐의 學問과 접촉이 활발했던 敎育學, 行政學, 經營學, 政治學 分野에서 心理學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역설하여 주었고, 外國의 心理學에 대한 인식이 대학사회 전반에 정착되면서 1978년을 기점으로 心理學科를 신설하는 大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78년부터 83년 사이에 무려 16개 大學에서 신설하였으며, 1978년까지 서울에만 집중되었던 心理學科는 全國的인 分散의 時代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78년부터 83년까지의 5年期間 동안은 心理學의 量的 膨脹期로 불릴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이들 新設心理學科들은 그 규모도

증대의 20~30명 정원에서 40~50명의 大學科로 출범하여 앞으로 心理學 專攻者의 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心理學科의 量的 膨脹現象은 그동안 양성되고, 누적되었던 心理學者들을 대거 學界로 인수하는 人力需要 創出의 好機會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心理學科의 教授確保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心理學科의 數的 增加에 따른 양적 증대와 더불어, 1970年代와 80年代初에는 學會의 活動도 專門化되었고, 研究論文의 數에 있어서도 괄목할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心理學者의 유일한 公式的 團體인 韓國心理學會는 1949年 大韓心理學會로 발족하여, 1953年 韓國心理學會로 개칭되고, 다시 1963년에는 오늘의 명칭인 韓國心理學會로 再發足하면서, 會員數와 活動面에서 1961년에는 75명이었으나 10년후인 1976년에는 140명으로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83년 현재에는 2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學問의 專門化를 뜻하는 分科會의 活動도 최근에는 매우 활발하여졌다. 1964년에는 産業心理分科會와 臨床心理分科會가 생겼고, 75년에는 社會心理分科會와 發達心理分科會가, 80년에는 認知心理分科가 추가되었으나 認知心理分科는 實驗心理分科會와 統合되었다. 研究論文의 數에서도 60년대에는 年平均 10編 미만이었던 것이 70년대에서는 점진적 성장을 보여 74년도 한해에 60여편의 論文이 발표되었다.<sup>6)</sup> 80년대에 들어서는 心理學教授의 數的 증가에 힘입어 論文數가 年平均 100編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心理學 研究와 教育의 質的 向上 그리고 넓어진 研究關心의 幅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 바 그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그동안 외국에서 心理學을 공부하고 돌아온 20여명의 心理學者의 活動이 크게 작용했으며, 이에 경쟁적으로 國內의 學者들이 분발하여 研究와 教育에 괄목할 발전을 이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韓國心理學의 發展을 車載浩教授는 時代的으로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特徵짓고 있다.

- 1) 解放以前の 黎明期
- 2) 解放以後의 胎動期
- 3) 動亂以後의 恢復期
- 4) 1963년부터 1973년까지의 着根期
- 5) 1974년에서 1977년까지의 專門化期
- 6) 1978년에서 現在까지의 膨脹期로 時代

的 特徵을 區分짓고 있다.

### Ⅲ. 韓國心理學教育의 問題點

韓國에서 心理學教育의 歷史가 짧은 만큼 心理學을 教育하고 研究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과 問題點을 안고 있다.

#### 1. 教授의 不足에 관련된 問題

서울大學校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心理學科의 教授數는 대부분 4명 미만이다. (高麗大만 5명) 그러나 한 大學의 學部의 心理學科에서 한 學期에 개설하고 있는 心理學 科目數는 보통 12個에서 16個에 이르고 있어, 한 명의 教授가 3개 科目 또는 그 이상의 相異한 專攻科目을 한 학기에 담당해야 한다. 이를 일년으로 환산해 보면 한 명의 教授가 6個 또는 그 이상의 專攻科目을 가르쳐야 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多科目教授現象은 教授自身에게는 專攻科目教授가 아닌 多方面心理學教授라는 教授의 非專門化現象을 助長하고 學生들에게는 科目의 性格에 맞는 教育보다는 教授의 知識에 맞는 教育을 받아야 하는 教育의 非專門化現象을 초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多科目 擔當現象 외에도 心理學科에서 지원하는 教養心理學에 대한 時間的 負擔은 외국에서 폭발적으로 산출되는 전공분야의 論文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적으로 빼앗게 되고, 이같은 現象은 心理學教授의 專門的 學問知識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心理學者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教授의 量的 不足과, 이와 관련하여 세부전공분야교수를 폭넓게 확보하지 못한데서 오는 教授專攻의 多樣化 欠如는 커리큘럼의 多樣化, 專門細分化에 치명적인 장애요소로 등장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心理學科는 學問의 性格 自體보다는 教授의 專攻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心理學教授가 적은 만큼 特定專攻分野 예컨대, 臨床心理學, 實驗心理學, 生理心理學, 測定心理學分野의 教授는 확보하려 해도 專攻者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분야의 專攻者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배출될 것을 기다리며

非專攻者가 이런 科目을 맡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분야의 專攻者가 國內外的으로 가까운 시기에 需要에 應當될 수 있도록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있다.

이와같이 教授數의 絕對的 不足은 心理學科의 커리큘럼 자체의 合理性 以前의 問題를 제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心理學科는 그 歷史가 짧은 만큼 外國과 國內他校의 心理學科 커리큘럼을 수시로 검토하는 機敏性과 熱意를 보이고 있어 커리큘럼의 合理性 問題는 큰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教授의 量的 不足과 教授專攻의 多樣性 및 細分化專門性 欠如는 大學院教育에도 똑같은 問題 提起한다. 특히 大學院教育에서의 問題는 教授의 授業準備時間의 결여로 새로운 知識을 습득해 강의하기가 어렵고 또한 自身이 研究한 研究物을 가지고 自身의 새로운 理論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大學에서 배운 것과 大學院에서 배운 것이 내용이나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불평하는 학생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또한 多科目, 多時間擔當은 心理學教育의 핵심인 實驗實習의 機會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문간 학과를 형성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研究活動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러한 教授不足에 따른 教育效果 장애요소들이 心理學教育의 質을 他社會科學分野의 그것보다 더 낮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韓國心理學의 歷史가 짧았다는 점은 美國, 獨逸, 프키스의 心理學을 방애받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되었고 外國에서 훈련받은 학자들을 재빨리 大學으로 흡수한 한국심리학계는 他 어느 社會科學分野에서 보다 教育 및 研究에 높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다만 心理學先進國의 學問과 比較基準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한데서 한국심리학교육의 결함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

## 2. 實驗施設과 實驗器材에 관련된 問題

心理學은 學問의 性格上 自然科學에 가깝다. 外國의 大學에서는 心理學을 自然科學로 분류하는 경향마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心理學의 知識은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實驗을 통

해 創出된다. 참고로 하바드大學의 경우는 200여개의 心理學實驗室을 가지고 있다. 日帝時의 京城帝大의 心理學 實驗室도 10여개에다 100여점의 實驗器具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sup>7)</sup> 오늘날의 心理學科에는 서울大, 高大, 嶺南大를 제외하고는 實驗施設이나 器材面에서 후진성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화된 실험기재를 사용해야 하는 生理心理, 知覺, 學習, 認知, 情緒의 實驗은 물론 產業實驗心理學의 研究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리하여 實驗에 고도의 전문적 경험을 가진 研究者까지도 器材를 사용한 實驗에 접하지 못하며, 점차로 專門性이 퇴색되는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

實驗室의 不足, 實驗器材의 결여는 大學의 예산부족과도 상관이 있으나, 더욱 큰 제도적 문제는 文教當局에서 心理學을 自然科學의 分野가 아닌 人文社會科學으로 분류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文教部는 물론 大學當局에서도 心理實驗器材의 도입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心理學科에 實驗室과 實驗器材가 없다면 100년 전에 발생한 분트(Wundt) 心理學 以前의 思辨心理學으로 되돌아 가거나, 哲學心理學이 되고 말 우려도 있다.

## 3. 職業과 관련된 問題들

心理學教育和 心理學關聯職業의 發達問題는 서로 무관한 것 같으나, 가장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大學院에서 心理學을 전공한 良質의 많은 專門家들이 心理學을 活用하는 職業을 찾지 못해 방황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心理學의 社會的 受容性 결여는 學部卒業生의 大學院進學動機를 약화시켜 왔고, 高校卒業者나 系列別募集 1學年生의 心理學科 志望選擇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心理學의 發達, 心理學科의 發展, 心理學者의 養成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심리학을 괴롭혔다. 이러한 就業上의 問題는 유능한 학생의 心理學科 選擇을 감소시켰고, 美國의 경우 物理學에 비금가는 GRE 점수를 요구하는 心理學科와는 달리 心理學을 전공하기에 부적합한 知能의 학생들이 心理學科에 오게 되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낚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心理學科의 급격한 팽

장은 大學院 心理學專攻者の 敎職活路를 열어 주었고, 大學院進學의 義務를 복돋우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근본적 문제인 學部卒業生의 社會就業은 아직도 그 전망을 밝게 열어 주지 못하고 있다. 心理學 自體는 純粹學問인 동시에 應用學問이라는 二重의 長點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社會狀況에서는 心理學은 二重의 短點을 가진 학문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왔다. 즉 완전히 應用學問도 아니요,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純粹學問의 인정도 올바로 받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 心理學科가 教育心理學科 또는 産業心理學科로 개편된 실례는 心理學에 대한 社會的 認識과 期待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나 기대와는 달리 心理學은 學問的 純粹性과 基礎學問으로서의 프라이드를 버리지 않고, 應用分野科目보다는 純粹理論分野의 教育에 더욱 치중했으며, 그 결과는 得과 失을 동시에 수반했다. 得의 측면은 大學院 教育을 통한 學者의 養成에, 失의 측면은 學部卒業生의 社會進出의 준비태세교육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學部卒業生의 社會進出을 위해서는 心理學科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나, 적은 數의 敎授陣으로는 敎授自身이 理論과 實務를 동시에 겸비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心理學卒業者가 급증되면서 敎授自身들도 學部卒業生의 就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文教當局에서 相談敎師資格證을 心理學專攻者에게 부여하겠다는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心理學專攻者の 就業問題의 가장 큰 장애는 사회에서의 心理學의 實用性에 대한 認識不足이다. 그러나 心理學界에서는 外部與件을 타하기에 앞서 社會에서 要求하는 資質을 갖춘 心理學卒業者를 양성해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IV. 心理學教育의 當面課題

心理學教育의 當面課題는 앞의 問題分析에서 이미 암시되어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暗示를 요약하면, 첫째, 心理學 敎授數의 增員確保이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院 心理學教育의 質量的 強化

와 心理學者育成에 대한 政策的 次元에서의 支援이다. 그러나 前者와 관련된 문제로는 현재 大學院에서 心理學分野의 博士課程을 두고 있는 大學은 서울대, 高大, 中大, 成大的 4개 大學에 불과하다. 이러한 國內의 敎授養成 教育機關의 制限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外國의 大學을 活用하는 方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大學當局과 文教部의 次元에서 國內의 大學院碩士들이 外國에 유학할 수 있도록 制度的, 財政的 支援을 하는 方法일 것이다. 동시에 현재의 당면 敎授難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相互交換講師體制를 地域單位로 強化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心理學 實驗室을 強化하는 問題이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心理學科의 實驗室強化를 위한 制度的 次元의 支援은 心理學을 自然科學系列로 편입시켜, 이에 필요한 實驗器材支援을 科學育成이란 政策次元에서 強化해야 할 것이다. 學校當局에서도 心理學은 백묵과 칠판으로 된다는 認識을 고쳐서 實驗室의 配定, 實驗室運營에 대한 財政的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心理學 專攻有關職業을 開發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心理學科自體의 社會適應性提高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方法으로는 靑少年問題, 産業問題, 人口問題 등과 같은 社會現實問題에 대한 心理學者의 敏感性을 높임과 동시에 실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 직업현실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開發, 產學, 官學, 軍學協同體制의 活性化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 註 >

- 1) 車載浩, 韓國心理學의 學風, 學脈(脫色된 日帝의 영향: 分裂·論爭없는 成長期待, 月刊朝鮮, 1982, 11, pp. 330~357.
- 2) 車載浩, 韓國心理學의 歷史, 現況 및 社會科學 協同研究의 方向, 社會科學論文集, 1976, 제 1집, pp. 61~100.
- 3) 車載浩, 「韓國心理學의 學風, 學脈」 p.232.
- 4) 이들 5個大學의 心理學科中 梨花女大는 教育心理學科로, 成均館大는 産業心理學科로 명칭이 바뀌었고, 서울女大는 教育心理學科內에 心理學專攻을 두고 있음.
- 5) 車載浩, 「韓國心理學의 歷史, 現況 및 社會科學 協同研究의 方向」 p.75.
- 6) 前揭書 p.80.
- 7) 車載浩, 「韓國心理學의 學風, 學脈」 p.333.